

It was my second mission trip to Bella Coola. I thought I knew what to expect. I figured this year would be similar to last year. Same village, same kind of ministry. Because of this mindset, I didn't spend much time preparing my heart and mind praying. I just assumed everything would fall into place. But when we got there, it was clear God had different plans from last year. I was first shocked when there were only 5 indigenous kids who had come to the camp. In that very moment I was dancing, my heart started to cry. I think I lacked in prayer. I had realized no matter how much hours we spent practicing the dancing and the games for the kids, nothing really matters if i didn't pray. So that night I prayed to God. I prayed in regret and humbleness. He reminded me every mission whether first or fifth, it is holy and sacred and a privilege. Then the next day more kids showed up. Even though I didn't prepare like I should have. God was there. Working within the little things. Kids started to open up they became more enthusiastic. This trip taught me that I can't expect for things to be the same. Every mission will be different and I need to prepare my heart with prayer and put my faith in God.

이번 선교는 저에게는 작년에 이어 벨라쿨라로의 두 번째 단기 선교였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여행에 대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마을, 같은 사역.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작년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먼저 VBS 캠프에 온 원주민 아이들이 단지 다섯 명밖에 없다는 사실에 처음 충격을 받았습니다. 워십댄스를 추던 그 순간, 제 마음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춤과 게임을 연습하는데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날 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후회와 겸손함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선교든 다섯 번째 선교든 모든 선교가 거룩하고 신성하며 특권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많은 아이들이 VBS 캠프에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을 열고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모든 것이 똑같은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선교는 다를 것이고,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워십댄스를 추던 그 순간, 제 마음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춤과 게임을 연습하는데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1) 2025년 표어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롬12:2)입니다.
- 2) 7월 정기 당회 7월 27일(주일) 오후 1:30-
- 3) 7월 목장 모임 7월 27일(주일), 목장 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 4) 7월 News Season 모임 7월 31일(목) 오전 10시 - (강사: 안 영 선생 / 오페라 가수)
- 주제 : 마음에 내리는 노래 (A Song of True Peace)
- 5) 8월은 재충전의 달
8월 한달은 목회 안식월로 보냅니다. 새벽예배와 양육 사역을 휴식하며 재충전의 기간으로 보내며 올해 전반기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예배와 금요성령집회는 계속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6)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 원로목사) 초청 말씀 성경회
- 일정 : 8월 8일(금) 저녁 7:30 / 9일(토) 저녁 7:30 / 10일(주일) 오전 11:30-

● 교우 동정

- 1) 새교우 등록 신청 이기연, 김가연 성도 (리엘, 시엘)

● 교역자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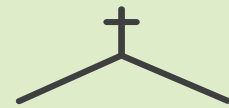
- 1) 휴가 윤은수 목사 (8월 2일 - 8월 8일)

● 7-8월 주요 행사 일정

- 1) 7월 목장 모임 7월 27일(주일) -
- 2) 7월 정기 당회 7월 27일(주일) -
- 3) 7월 News Season 모임 7월 31일(목) 오전 10시 -
- 4)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 원로목사) 초청 말씀 성경회
- 8월 8일(금) - 8월 10일(주일)
- 5) 여름성경학교 (VBS)
- 8월 29일(금) - 31일(일) / 오전 10시 - 오후 3시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권태욱 (Jonathan Kwon) 목사, • 협동목사 문갑주 목사
- 원로목사 / 파송선교사 홍성득 (Sung D. Hong) 목사
- 부교역자 윤은수 목사(청소년부, 행정, 선교), 한기석 목사(젊은이/청년부, 양육)
배영광 목사(협력선교사, 예배 찬양), 하선미전도사(유치/유초등부, 마더와이즈)
이영미전도사(영아부/유아부), 김정숙선교사(시니어 사역)
이우혁전도사(젊은이 예배 찬양 담당), 김지형전도사(인턴)
- 시무 장로 김항덕, 우종근, 조석희, 박종덕 • 협동 장로 임선종
- 반 주 김민경, 변순환(새벽예배)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what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새롭게 **변화**하는 교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
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도록 하라. (롬 12:2)



 **써리한인교회**
SURREY PRESBYTERIAN CHURCH

15964 88 Ave. Surrey. B.C. V4N 1H5 • TEL. 778-222-2582

